

# 수영선수 딸·심판 엄마 ‘최고의 파트너’

## 동아수영대회 여자일반부 점영 100m 우승 안세현과 어머니

운동 뒷바라지 하다 심판 자격증 획득 딸 출전경기에 경쟁자 기록 게시 맡아 옆레인서 역영하는 딸 마음으로 응원 딸은 자신의 한국기록 깨고 우승 화답

서 4번 레인의 계시심판을 맡았다. 딸 안세현은 바로 옆 5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심판을 본 4번 레인에는 안세현의 라이벌 최혜라(23·전북체육회)가 버티고 있었다.

●어머니 “눈은 4번 레인, 마음은 5번 레인” 안세현은 “관례적으로 심판과 선수는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출전을 위해 입장할 때도 옆 레인에 위치한 어머니와는 간단한 눈인사만 주고받았다. 스타트 총성이 울렸다. 안세현은 초반부터 치고나갔다. 50m 지점에서 턴을 한 뒤에도 어머니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결국 새로운 대회기록이 탄생했다. 계시심판은 해당 레인의 선수가 터치패드를 찍는 순간 백업장치와 스피커를 동시에 눌러야 한다. 선수가 들어오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다. 어머니는 딸이 신경 쓰였지만, 심판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이경숙 씨는 “눈은 4번 레인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딸이 레이스를 펼친 5번 레인으로 향했다”고 털어놓았다. 안세현이 막 밖으로 나온 뒤에야, 모녀는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며 방긋 웃을 수 있었다.

제86회 동아수영대회(24~28일)에는 초·중·고·대 일반부에 걸쳐 총 147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은 선수뿐 아니라, 자식을 응원하러 온 학부모들로도 북적인다. 이들은 경기장 복도에 못자리를 깔고 까니를 해결하는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직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수영 공부를 하다가 심판 자격증을 딴 학부모도 있다. 26일 여자 일반부 점영 100m 결선에서 대회신기록(59초95)으로 우승한 안세현(19·울산시청)의 어머니 이경숙(46) 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 씨는 이번 대회에서 딸의 경기에 심판으로 나서 화제를 모았다.

●딸은 선수로, 어머니는 심판으로! 수영 심판은 계시심판, 반환심판, 영법심판, 착수심판 등으로 구성된다. 출발지점에 위치한 계시심판은 스타트에서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전광판의 오작동에 대비해 백업장치와 스피커로 기록을 측정한다. 반환심판은 턴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살피고, 영법심판은 올바른 영법으로 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착수심판은 순위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경숙 씨는 26일 여자 일반부 점영 100m 결선에

●한국기록 보유자 안세현 “내 기록의 90%는 어머니의 몫” 안세현은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58초63의 여자 점영 100m 한국기록을 세웠다. 본인의 종전 한국기록(58초84)을 0.21초 단축한 쾌거였다. 그 공로로 2월 박태환(25·인천시청)과 함께 2013년 대한수영연맹 남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울



제86회 동아수영대회 여자 일반부 점영 100m에서 우승한 안세현(왼쪽)이 27일 어머니 이경숙 씨와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씨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수영 공부를 하다가 심판 자격증을 딴, 1위를 차지한 딸의 경기에 계시심판으로 나섰다.

산은 안세현이 나고 자란 곳이다. 이 지역 수영 꿈나무들에게는 롤 모델과도 같다. 안세현은 “어머니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뒷바라지해주셔서 운동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충고를 잔소리라고 생각해 싸운 적도 많았다. 하지만 뒤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뿐이다. 내 기록의

90%는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소 지었다. 이경숙 씨는 “(안)세현이가 최근까지 장염과 목감기로 고생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항상 건강하기만 바랄 뿐”이라며 애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울산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 동아수영 수구 이명우 “내 조카 김연경 가문의 영광”

여자배구 월드컵스타의 13세 많은 외삼촌 2006도하아시아게임 뎀 함께 태극마크 “마흔살 되니 조카가 삼촌 걱정 많이 해”



제86회 동아수영대회(24~28일)의 수구 경기는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7일 종료됐다. 남자 고등부 결선에서 서울체고가 전북체고와 4피리어드까지 6-6으로 비긴 뒤 승부던지기에서 4-2로 승리해 정상에 올랐다. 전북체고는 4피리어드 종료 7초 전 동점골을 성공시켰지만, 승부던지기에서 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대학·일반부에선 한국체대가 우승, 경기도체육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수영연맹은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체육회 소속으로 활약한 이명우(39·사진)는 배구스타 김연경(26·페넬라바체)의 외삼촌으로 수구계에선 유명하다. 김연경은 이명우의 친누나 이금옥 씨의 3녀 중 막내다.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인지, 외삼촌 역시 185cm·90kg으로 조카(192cm)처럼 건장한 체격을 자랑한다. 평영

·배영이 주종목이던 이명우는 포포상고 1학년 재학 시절 수구선수로 전향했다. 거친 몸싸움 등 남성적 스포츠의 매력에 흠뻑 빠졌기 때문이었다. 고교 졸업 후에는 한체대~상무 등을 거치며 1995~2006년 수구대표팀에서 활약했다. 2002부산아시아게임과 2006도하아시아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고, 특히 도하대회 때는 당시 18세이던 조카 김연경도 함께 출전해 화제가 됐다.

●“김연경의 존재 자체가 가문의 영광” 김연경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외삼촌은 집안에서 가장 반대를 많이 한 식구였다. 운동선수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중도에 포기했을 때 진로가 마땅하지 않다는 걸 역시 반대의 이유였다. 그러나 조카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명우는 “조카가 누나에게 ‘난 죽어도 코트에서 죽겠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이왕 할 거면 어서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격려했다”고 회상했다. 초등학교 때 작은 키였던 김연경은 중·고교 시절 신장과 실력이 일취월장했고, 결국 한국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이명우는 “(김)연경이란 선수가 나온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40세 운동선수’ 외삼촌을 걱정하는 조카 외삼촌-조카 사이지만, 나이 차이는 불과 13세. 둘은 오빠-동생처럼 친근한 사이다. 터키에서 활약하는 김연경과는 자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예전엔 외삼촌이 조카를 걱정했지만, 요즘엔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명우는 “수구가 워낙 격렬한 운동인 데다가 우리 나이가 이제 마흔이다 보니, 조카가 ‘힘들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한다. 골키퍼를 제외하면 내가 수구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하지만 체력이 닿는 한 선수생활을 지속하고 싶다. 후배들에게도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울산 | 전영희 기자

# 여자 배영 기대주 이다린 동아수영 2관왕

주종목 아닌 50m 대회신기록 깨기 남자일반부 점영 200m 장규철 1위

‘여자 배영의 기대주’ 이다린(15·서울체중3)이 제86회 동아수영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다린은 27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여자중부 배영 50m 예선에서 29초49의 대회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결선에서도 29초16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본인의 최고기록(29초20)과 예선에서 작성한 대회기록을 모두 갈아 치우는 순간이었다.

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수영 꿈나무 발굴·육성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수혜자다. 1월 중순~3월 초 호주 전지훈련을 통해 기록의 기록이 줄었다는 평이다. 남자일반부 점영 200m 결선에선 한국기록(1분57초82) 보유자 장규철(강원도청)이 1분58초8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점영 200m 결선에선 이은영(전북체육회)이 2분11초67로 우승했다. 안세현(울산광역시청·2분12초12)이 2위, 최혜라(전북체육회·2분12초90)가 3위를 기록했다. 남자대학부 자유형 100m 결선에선 양준혁(서울대)이 50초83으로 정상에 섰다. 남자고등부 계영 800m 결선에선 이승균, 김재운, 허원서, 김다산으로 구성된 서울체고가 7분46초46으로 1위에 올랐다. 울산 | 전영희 기자

## 경기 결과

- 제 86회 동아수영대회(울산문수실내수영장)
  - 50m 배영 남자 일반부 결선전=① 박선민(대전시체육회) ② 이주호(제주도청) ③ 한명석(강원도청) ④50m 배영 여자 일반부 결선전=① 이주호(울산광역시청) ② 고수민(제주시청) ③ 유현지(경남체육회) ④50m 배영 남자 대학부 결선전=① 강지석(한체대) ② 이현진(동아대) ③ 임재원(경성대) ④50m 배영 여자 대학부 결선전=① 인혜진(경희대) ②50m 배영 여자 고등부 결선전=① 이학민(충남체고) ② 이수영(경기체고) ③ 강민규(대구체고) ④50m 배영 여자 고등부 결선전=① 박한별(부산체고) ② 김신하(남강대) ③ 강은지(인천체고) ④100m 자유형 남자 일반부 결선전=① 신희웅(강원도청) ② 임재원(전주시청) ③ 배준모(대구광역시체육회) ④100m 자유형 여자 일반부 결선전=① 황서진(제주시청) ② 김경혜(경북도청) ③ 정유인(제주시청) ④100m 자유형 남자 대학부 결선전=① 양준혁(서울대) ② 남기용(동아대) ③ 이호석(한체대) ④100m 자유형 여자 대학부 결선전=① 최보라(경성대) ②100m 자유형 남자 고등부 결선전=① 김다산(서울체고) ② 김효진(토opil) ③ 최충훈(도청) ④100m 자유형 여자 고등부 결선전=① 정은(경북체고) ② 차현희(사지고) ③ 고미소(인천체고) ④200m 접영 남자 일반부 결선전=① 장규철(강원도청) ② 정윤(대전시체육회) ③ 우혁재(대구광역시체육회) ④200m 접영 여자 일반부 결선전=① 이은영(전라북도체육회) ② 안세현(울산광역시청) ③ 최혜라(전북체육회) ④200m 접영 남자 대학부 결선전=① 황동근(한체대) ② 노지용(경성대) ③200m 접영 여자 대학부 결선전=① 정다혜(연성대) ② 손나나(경성대) ③200m 접영 남자 고등부 결선전=① 정재윤(인천체고) ② 정다연(말성고) ③ 최지민(대구체고) ④200m 접영 여자 고등부 결선전=① 이혜림(서울체고) ② 박진영(안남고) ③ 이하민(장덕여고) ④수구 남자 고등부 결선전=서울체고 10-8 전북체고

KB스타즈, 하나외환 FA 김보미 지명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7일 자유계약선수(FA) 2차 협상에 의한 이적선수에 대해 KB스타즈가 하나외환 김보미, 하나외환이 삼성생명 홍보관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5일 하나외환은 연봉 2억원·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KB스타즈 FA 정선화, 삼성생명은 연봉 2억1100만원·계약기간 3년의 조건으로 하나외환 FA 박하나를 각각 영입했다.

최보민 양궁월드컵 컴파운드 개인 우승 최보민(청원군청)이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1차 월드컵 컴파운드 여자부 개인전 결선에서 사라 로페스(콜롬비아)를 140-109로 꺾고 우승했다. 컴파운드 혼성부에 출전한 민리홍(현대제철)-김윤희(하이트진로)도 결선에서 대런 브리저-에리카 존스(미국)를 156-15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최보민, 김윤희, 석지현(현대모비스)이 출전한 컴파운드 여자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따냈다.

# ‘슈퍼루키’ 백규정 데뷔 첫승

작년 상금왕 장하나 추격 뿌리치고 넥센 마스터즈 정상 경험 부족을 배경으로 극복...이번 시즌 신인왕 예약

상금왕 장하나(22·비씨카드)도, 신인왕 출신 김지희(20·대방건설)도 ‘슈퍼루키’의 돌풍을 막지 못했다. 백규정(19·CJ오쇼핑·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데뷔 첫 승을 따냈다. 백규정은 27일 경남 김해 가야골프장 낙동·신어코스(파72)에서 열린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더블보기와 보기를 1개씩 적어내 3언더파 69타를 쳤다. 합계 9언더파 207타로 2013년 상금왕 장하나(7언더파 209타)의 추격을 2타차로 뿌리치고 프로 데뷔 4경기 만에 첫 우승에 성공했다.



옆치락뒤치락 한 치의 양보 없는 샷 대결에서 승부를 가른 건 실수였다. 먼저 위기가 찾아온 건 백규정이다. 10번홀까지 3타 차 선두를 달려 우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11번홀(파4)에서 2타를 잃었고, 14번홀(파4)에서 다시 보기를 적어내 1타 차 2위로 내려앉았다. 승부의 추가 기우는 듯 했지만 이번엔 장하나의 실수가 나왔다. 16번홀(파5)에서 티샷이 페어웨이 오른쪽 숲에 떨어졌고, 4번째 샷 만에 그린에 올라왔지만 2퍼트도 보기를 적어냈다.

백규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먼저 버디를 성공시켜 다시 1타 차 역전에 성공했다. 승부를 다시 뒤집은 백규정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천금같은 버디를 성공시키며 짜릿한 우승 드라마를 완성했다. 슈퍼루키의 탄생. 백규정은 프로골퍼에게 필요한 모든 걸 찾았다. 실력은 물론 배짱도 좋고 자신감도 넘친다. 고교 2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2012년엔 김효주(19·롯데), 김민선(-CJ오쇼핑)과 함께 세계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가장 돋보이는 건 뛰어난 승부근성. 역대 가장 치열하다는 신인왕 경쟁에서 단연 첫 손에 손꼽히는 이유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의 부친 백진우(50)씨는 젊은 시절 유도와 씨름 선수를 했다. 백 씨는 딸의 승부근성을 키워주기 위해 어려서 승마를 시키기도 했다. 겁이 많은 딸을 강심장으로 키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백 씨는 “초등학교 시절 배짱과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 승마를 시켰다. 처음에는 겁을 먹고 잘 타지 않으려 하더니 나중에는 혼자서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말 타는 것을 즐겼다. 그것 말고도 별의 별 일을 다 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우승의 원동력도 두둑한 배짱 덕분이다. 여자골프 1인자 장하나와의 대결은 쉽지 않았다. 장 하나는 백씨가 좋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백규정은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자신의 손으로 풀었고, 경험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백규정은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손녀딸이 1등 하는 모습 봐야하는데’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우승을 바치고 싶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백규정의 우승과 함께 신인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김민선(19·CJ오쇼핑)은 합계 6언더파 210타를 쳐 김지희(20·대방건설), 박주영(24·호반건설)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고, 고진영(19·넵스)과 오지현(18·KB금융그룹)은 공동 9위(4언더파 212타)로 경기를 마쳤다. ‘톱10’ 중 6명이 신인이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 노승열 PGA 투어 첫승 눈앞

취리히 클래식 3R까지 2타차 단독선두 리디아 고 LPGA 스윙인스커츠 3R 2위

남자골프의 영건 노승열(23·나이키골프)과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17·한국이름 고보경)가 동반 우승을 노린다.

노승열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루이지애나TPC(파72)에서 열린 미 PGA투어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68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쓸어담아 7언더파 65타를 쳤다. 사흘 내내 보기 없는 플레이를 펼친 노승열은 중간합계 18언더파 198타로 키건 브래들리(미국·16언더파 200타)에 2타 앞선 단독 선두를 달렸다. 2010년 아시아투어 상금왕 출신인 노승열은 2012년부터 PGA투어에 진출했지만 아직 우승이 없다. PGA투어 역대 최고 성적은 2012년 AT&T 내셔널에서 거둔 공동 4위.

리디아 고는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미 LPGA 투어 스윙인스커츠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 3라운드까지 단독 2위를 마크했다. 리디아 고는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를 적어내 10언더파 206타를 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 1타 뒤져 있다. 지난해 프로로 전향한 리디아 고는 프로 데뷔 이전 두 차례 LPGA투어 우승(2012년, 2013년 캐나다여자오픈)만 있을 뿐 정식 회원이 된 이후엔 아직 우승이 없다. 주영로 기자

# NBA 동부 PO 1라운드 마이애미가 살럿에 3연승

미국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가 27일(한국시간) 타임 워너케이블 아레나에서 열린 샬럿 밥캐츠와의 2013~2014시즌 플레이오프(PO) 동부콘퍼런스 1라운드(7전4승제) 원정 3차전에서 98-85로 이겨 3연승을 달렸다. 마이애미 르브론 제임스는 30점-10리바운드의 더블더블을 작성했다. 동부콘퍼런스 1위로 PO에 오른 인디애나 페이스서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원정 4차전에서 91-88로 승리해 2승2패를 이뤘다.